

99년도 예산자치제 시행에 대한 제안서

1. 98년 여성자치단체예산자치제시행

98년 4월 자치단체총회 '따로 또 같이'에서 예산자치제 시행이 결정되었습니다.

해당금액은 전체 총예산의 20%인 5,050,000원입니다.

이 금액은 자치단체연석회의의 임시 총무에게로 전액 넘어갔으며, 자치단체연석회의에서 정한 예산자치제의 원칙에 의해 운영되었습니다.

원칙은

0. 예산 자치제는 시행은 총여지원액으로 부족할 경우 사용한다.

1. 자치단체 공동사업을 우선으로 한다.

2. 자치단체에게는 사업별 지원을 한다.

자치단체별 고정배당액이 정해져 있지 않음을 뜻합니다.

이 원칙하에 예산자치제는 시행되었으며 현재 남은 금액은 없습니다.

아래는 세부 지출항목입니다.

	지원단체	내역	금액	총액
공동사업		컴퓨터	1,700,000원	
		따로 또 같이	100,000원	
		여성연대한판참가비	50,000원	
		성폭력해방선언주간 팻	300,000원	
		11대 선거와 여성연대질서를 위한 토론회	50,000원	2,200,000원
개별사업	두입술	창간호	2,000,000원	
	beyond	성폭력자치규약자료집	550,000원	
	애도래	학기당 행사지원금	300,000원	2,850,000원
총지출액				5,050,000원

공동사업영수증은 총무가 가지고 보관하고 있습니다.

2. 99년도 예산자치제 시행

현재 예산자치제의 시행 원칙에 대한 검토작업과 돈 관리를 할 새로운 총무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3. 현재 11대 총여가 98년도 예산자치에 대해 실사를 하고자 합니다. 이것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해야할지 논의해 보았으면 합니다.

총여는 해당금액을 예산자치제로 넘기는 것, 해당금액을 총무에게 주는 것으로 그 책임이 끝나며 그 것이 어떻게 시행되느냐에 대해서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음이 예산자치제에 대한 전제입니다.